

대구일보



제16096호 대표전화 (053) 7575-700 idaegu.com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단기 4359년 음력 11월 26일

교실이 비어간다…내년 지역 초교생 10만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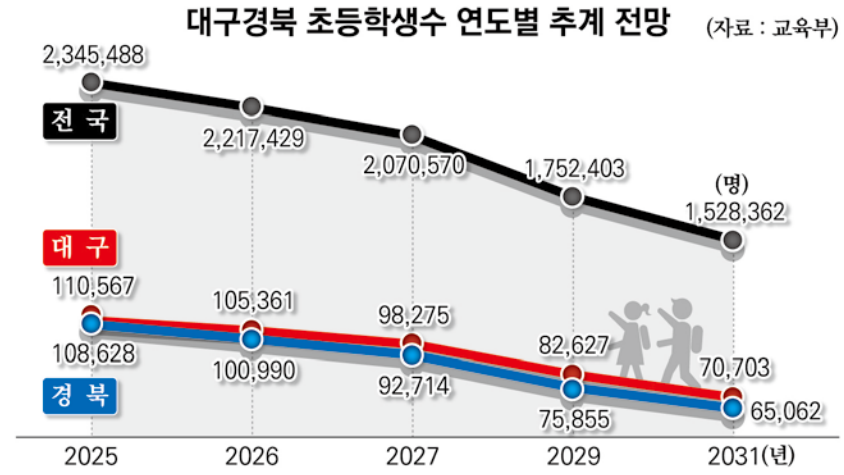
내년 대구·경북 9만 명대로…2031년까지 각 7·6만 명↓
올해 전국 초교 1학년 30만 붕괴…학령인구 절벽 직격탄
학교 통폐합·폐교 가속화 속 교육여건 악화 우려 제기

대구·경북지역 초등학생 수가 이르면 내년, 각각 10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의 예측을 넘어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등 교육현장 전반을 뒤흔드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11만567명에서 올해 10만5천361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9만8천275명으로 감소하면서 10만 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져 오는 2031년에는 7만703명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경북의 감소폭은 더 크다. 경북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10만8천628명으로 10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했지만, 올해 10만990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내년에는 9만2천714명으로 10만 명선이 크게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6만5천62명으로, 현재보다 4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등생 수 감소 흐름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으나, 주민등록인구와 취학률 변화 등을 반영해 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027년 27만7천674명에서 2030년 23만2천268명, 2031년에는 22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 추산치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보다 약 32% 줄어든 규모다.

학생 수 감소는 이미 대구·경북지역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서는 수년간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초·중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23년 교동중을 시작으로 2024년 신당중과 2025년 서변초 조야분교가 문을 닫았으며, 올해는 월곡초·비봉초·서촌초·파호초 4개교가 문을 닫는다. 경북 역시 올해 학령인구가 급감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3곳이 폐교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학년이 한 학급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인근 학교와의 통합이나 분교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도심에서도 학급 수 축소와 공동학구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당국은 통학권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고환율에 짓눌린 지역 기업

원가·물류·이익 모두 '덜덜'

원·달러 환율 1천470원대 진입
글로벌 악재에 원화 약세 지속
업체 수익성 악화·경영난 가중
외환시장 안정·정책 지원 요구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값과 물류비가 곧바로 따라 오릅니다. 수출 물량이 있어도 비용 부담 탓에 이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대구 제조업계 전반에서 환율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1천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원·달러 환율은 한때 1천4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5.3원 오른 1473.7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장중 환율이 1천470원을 웃돈 것은 외환당국이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던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 데다,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한복의 멋에 빠져볼까" 설명절을 한 달여 앞둔 13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한복'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예복과 모자, 신발, 자수 등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복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박물관을 찾은 한 시민이 다양한 저고리의 맵시를 휴대전화에 담고 있다. 김진흥 기자 solmin@idaegu.com

이 같은 환율 흐름은 대구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고, 물류비와 외화 결제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면에 계속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